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Parents and their
School Stress on Depression
: Focusing on Control Effects of Ego-Resilience

김희주(HeeJu Kim), 이지민(Jimin Lee)*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gender and school level differences in adolescents' depression , and the influences of parent attachment and school stress on adolescents' depression and the effect of ego-resilience relations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depression, and that of school stress and depression. 402 of students(the first and the second graders of middle school and of high school in academic track in D area) completed questionnaire on parent attachment, school stress, ego-resilience, and depression. Descriptive statistic analyses, reliability analyses, Two-way ANOVAs,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rough SPSS WIN 20.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re was school level difference, but not gender differences, on adolescents' depression. 2) There was ego-resilience control effect on the relations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adolescents' depression only for middle school students, but not for high school students. 3) There were ego-resilience control effect on the relations between school stress and adolescents' depression for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importance of ego-resilience and school levels in understanding adolescents' depression was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 부모애착(parent attachment), 학교 스트레스(school stress),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우울(depression)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독립된 성인기로의 변화가 급

격히 일어나는 시기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변화가 초래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Jimin Lee,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Daehakro 280, Gyeongsansi, Gyeongbuk 712-749, Korea, Tel: +82-53-810-2886, E-mail: ljimin@yu.ac.kr

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여야 한다(M. Nam & S. Cho, 1994).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되고 행동적·정서적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는 내재화 되거나 혹은 외현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내재화 문제는 감정이나 행동이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면화 되어 과잉 통제된 행동으로 불안, 우울 등의 정서문제를 포함하며, 외현화 문제는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으로 비행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S. Kim, 2006).

그중에서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심리적인 부적응의 하나이다. 우울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학업적·정서적·행동적 부적응 문제와 관련되고(Scott et al., 2008; H. Shin, 2009), 청소년 자살문제와 관련하여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H. Kim, 2008; B. Park, 2007)들을 고려할 때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라 할 수 있다(M. Yoon & J. Lee, 2008). 또한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이 성인기에 재발하는 확률이 높으며,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성인기 대인 관계 패턴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우울로 인해 대인관계의 손상 및 기타 행동적 문제를 초래하고, 학업 수행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B. Lee, 2005).

인간의 정신건강은 출생과 더불어 처음 접하게 되는 부모와의 일차적인 관계로부터 비롯되어 성장해 감에 따라 가족 구성원, 또래집단, 학교집단, 사회로 확대되는 다양한 인간적 상호작용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D. Min, 2007). 이처럼 가정은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를 통해 정서적 발달 및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의 특성상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고 독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지만 또래와의 애착형성이 아직 불안정한 시기이며, 동시에 부모와 여전히 애착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즉,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기에도 이들의 적응 및 발달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 C. Armsden & M. T. Greenberg, 1987; C. Hwang, 2006).

J. E. Paterson, J. Field, & J. Pryor(1994)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청소년의 애착에 따른 성차 및 연령차를 보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의 질을 보고하였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 애착의 질을 낮게 보고하였다. P. R. Amato(1993, 200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위에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 집단의 부모애착 점수가 가장 낮으며, 남자 중학생 집단, 여자 고등학생 집단, 여자 중학생 집단의 순으로 부모애착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 이미 우울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라도 이후 부모애착의 변화정도에 따라 정신건강문제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애착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 Sim & J. Ko, 2008).

한편, 학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또래관계를 통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 학교에서의 생활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청소년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다. 학교생활 및 학업,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등으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으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K. Lim, 2013). 청소년기에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지나친 기대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교스트레스는 우울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Undlheim & Sund, 2005).

S. Kim(2001)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요인, 교사요인, 친구요인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밝혔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J. Bae(2002)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업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였고, 교사 및 생활요인, 친구요인, 이성친구 요인 등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받는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까지 영향을 주었다(K. Lee, S. Cho, & J. Kong 2011). 이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는 우울을 일관되게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정이나 학교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정신건강의 위해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위해상황 하에서 보다 잘 적응하도록 돕고 이를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함양시켜 주는 일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응을 예방하고 대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아탄력성이란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적절한 자기통제를 하도록 도와주고 낙관적인 태도로 현실을 수용하여 갈등적인 문제 상황을 효

울적으로 극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우울을 억제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H. Kim, 2013). 자아탄력성과 우울 관련 선행연구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자존감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탄력성이 우울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하였다(I. An, 2005). 또한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비탄력적인 아동들에 비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다양한 문제해결책략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또는 문제 상황에서 보다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능력을 보였으며(E. Lee, 2001), 대인관계능력이 우수하며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여도 심리적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 Khu, 2001). 또한 자기통제수준이 높고 학업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학교생활을 잘하며(Hwang & Kim, 2011; J. G. Johnson, E. Bromley, & F. G. McGeoch, 2005), 지적성취도가 높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으며(B. E. Compas, B. R. Hinden, & C. A. Gerhardt, 1995), 주변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하였다(A. Yoo, J. Lee, & J. Kim, 2005). J. Lee(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부모와의 애착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여자 청소년의 우울이 남자 청소년의 우울 보다 높다는 많은 연구결과(I. Chio, 2007; C. Lee, J. Chung, & M. Rhee, 2009; E. Lee, & S. Chung, 200;)가 있다. 청소년의 우울은 학령기 전에는 아주 드물고, 중기 아동기에는 좀 더 빈번하게 발생되기 시작하고, 청소년기에 현저히 증가해 성인 수준과 비슷해지며, 이때부터 성차도 가속화 되어 여아가 남아보다 두 배 더 빠르게 발생 비율이 증가된다(H. Lee, 2006). P. M. Lewisohn, P. Rohdew, & J. R. Seeley(1998)의 연구에 의하면, 19세 이전까지 청소년의 28%가 주요우울 증상을 경험하며, 남학생의 19%, 여학생의 35%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차 발현과 유지 현상에 대해 서구에서는 그 원인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는데, 성호르몬과 뇌의 신경전달물질이 성에 따라 기분 상태에 다른 영향을 미쳐 성차가 나타난다고 생물학적 관점(A. Angold, E. J. Costello, A. Erkanli, & C. M. Worthman, 1999; J. M. Cyranowski, E. Frank, E. Young, & M. K. Shear, 2000)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고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인지적 관점(S. Nolen-Hoeksema, 2000; K. D. Ru-

dolph, 2002), 발달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적·신체적 외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발달적 관점(C. Hammen & K. D. Rudolph, 2003) 등이 논의 되어 왔다(M. Sin, K. Chung, & E. Kim, 2012).

이처럼 청소년의 우울은 성별에 따라,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성별 및 발달단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중·고등학교별로 우울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부모애착,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이 우울을 조절하는지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 중·고등학교별로 따라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모애착, 학교스트레스, 우울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고등학교별로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3-1]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3-2]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중·고등학교별로 따른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4-1]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4-2] 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지역 중학교 1학년, 2학년과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4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학생 206명(51.2%), 남학생 196명(48.8%)이며, 중·고등학교별로는 중학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402)

Variables	Division	n	%	Variables	Division	n	%
Gender	Male	196	48.8	Gender by grade level	Male middle school students	99	24.6
	Female	206	51.2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106	26.4
	Total	402	100		Male high school students	97	24.1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205	51.0		Female high school students	100	24.9
	high school students	197	49.0		Total	402	100
	Total	402	100		Average grade	Top	154
Family details	Living with parents	345	87.1	Center		126	31.3
	Parents living aprt	51	12.9	Lower rank		122	30.4
	Total	396	100	Total		402	100
	Education of father	High school and lower level	155	39.1	Education of mother	High school and lower level	186
College graduation		30	7.6	College graduation		29	7.4
Graduate school and higher level		211	53.3	Graduate school and higher level		178	45.3
Total		396	100	Total		393	100
Father's Occupation	Office job	185	46.5	Moher's Occupation	Inoccupation	139	34.9
	Sales job	119	29.9		Sales job	98	24.6
	etc.	36	9.0		etc.	80	20.1
	Total	398	100		Total	398	100

※ 무응답 수에 따라 변인마다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205명(51.0%), 고등학생 197명(49.0%)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중·고등학교별 성별로는 남자중학생 99명(24.6%), 여자중학생 106명(26.4%), 남자고등학생 97명(24.1%), 여자고등학생 100명(24.9%)로 나타났다. 가족사항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이 345명(87.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청소년이 지각한 평균 성적은 상 154명(38.3%), 중 126명(31.3%), 하 122명(30.4%)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211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모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86명(47.3%), 대학교 졸업 이상이 178명(45.3%)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 직업은 사무직이 185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모 직업은 무직 139명(34.9%)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부모애착

부모 및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IPPA-R)을 J. Ok(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척도를 제외하고, 아버지 애착 척도와 어머니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50문항(부 25문항, 모 25문항)이며,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뢰감 요인 중 3, 17, 18번 문항, 의사소통 요인 중 23번 문항과

소외감 요인의 전 문항을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로 나타났다.

2) 학교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는 M. Han and A. Yoo(1995)의 연구 및 Philips(1978)가 제작한 학교스트레스 척도를 S. Kim(2001)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문항이며, 학업, 친구, 교사 및 학교생활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3) 우울

우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제작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Scale)를 M. Cho and K. Kim(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극히 드물었다(0점)', '가끔 있었다(1점)', '종종 있었다(2점)', '대부분 그랬다(3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긍정적 정서인 5, 10, 15번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로 16점 이상은 경도 이상의 우울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M. Kim(2011)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9문항이며, 긍정 사고, 문제해결, 친밀행동, 감정조절, 자율행동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D지역 중학교 1학년, 2학년과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지역의 경제적·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여 유의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2013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4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10부 모두 회수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40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과 중·고등학교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부모애착, 학교스트레스, 우울,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부모애착,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의 일종인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별과 중·고등학교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과 중·고등학교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남학생(M = 19.49, SD = 8.67)과 여학생(M = 20.75, SD = 9.76)의 우울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별 평균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우울은 평균 21.53, 표준편차 9.11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우울은 평균 18.40, 표준편차 9.10로 나타났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별 주효과(F = 9.00, p < .01)만 있었고, 성별 주효과와 성별×중·고등학교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우울이 중학생의 우울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Middle and High School

Division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Total
		M(SD)	M(SD)	M(SD)
depression	Male	17.285(9.028)	21.264(7.984)	19.490(8.668)
	Female	19.521(9.100)	21.822(10.245)	20.750(9.763)
	Total	18.395(9.100)	21.530(9.106)	20.101(9.222)

Table 3. Two-way ANOVA Results of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Middle and High School

Division	Variance	SS	df	MS	F	
depression	The main effect	Gender(1)	147.530	1	147.530	1.782
		Middle · High school students(2)	745.020	1	745.020	8.997**
	Interaction effect	(1)x(2)	53.171	1	53.171	.642
	Error		24925.942	301	82.810	

** $p < .01$

Table 4. Correlation,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High school students			
		Parent attachment	School stress	Depression	Ego-resilience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 attachment	1	-.33**	-.34**	.43**
	School stress	-.43**	1	.59**	-.34**
	Depression	-.46**	.57**	1	-.47**
	Ego-resilience	.54**	-.35**	-.53**	1
Middle school students	M	185.24	53.51	18.40	136.54
	SD	32.96	14.49	9.10	19.44
High school students	M	180.59	56.40	21.53	136.57
	SD	29.46	11.08	9.11	15.49

** $p < .01$

Middle school students are left-below the diagonal,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right-upper the diagonal.

1: Parent attachment 2: School stress 3: Depression 4: Ego-resilience

2. 부모애착, 학교스트레스, 우울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앞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중 · 고등학교별 주효과만 나타났으므로 중 · 고등학교별에 따른 부모애착, 학교스트레스, 우울,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부모애착과 우울($r = -.46$, $p < .01$)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r = .54$, $p < .01$)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학교스트레스와 우울($r = .57$, $p < .01$)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교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r = -.35$, $p < .01$)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아탄력성과 우울($r = -.53$, $p < .01$)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애착과 우울($r = -.34$, $p < .01$)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r = .43$, $p < .01$)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학교스트레스와 우울($r = .590$, $p < .01$)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교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r = -.34$, $p < .01$)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아탄력성과 우울($r = -.47$, $p < .01$)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3. 중·고등학교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중·고등학교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X×M)이 독립변인(X) 및 조절변인(M)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값으로 센터링(centering)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차는 .75으로 .10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은 1.33로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부모애착), 조절변수(자아탄력성)를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부모애착), 조절변수(자아탄력성), 상호작용변수(부모애착×자아탄력성)를 투입하였다.

1)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Model 1'에서는 부모애착($\beta = -.26, p < .01$), 자아탄력성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in the De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N = 126)

Depression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2.92		10.75***	7.30		4.78***
Independent variables	Parent attachment	-.18	-.26	-2.86**	-1.29	-1.87	-3.34**
Controlled variable	Ego-resilience	-.37	-.37	-4.10***	-1.64	-1.64	-3.69***
Interaction variables	Parent attachment × Ego-resilience				.32	2.57	2.91**
R ²			.32			.36	
Adj(R ²)			.31			.35	
F			28.68***			23.12***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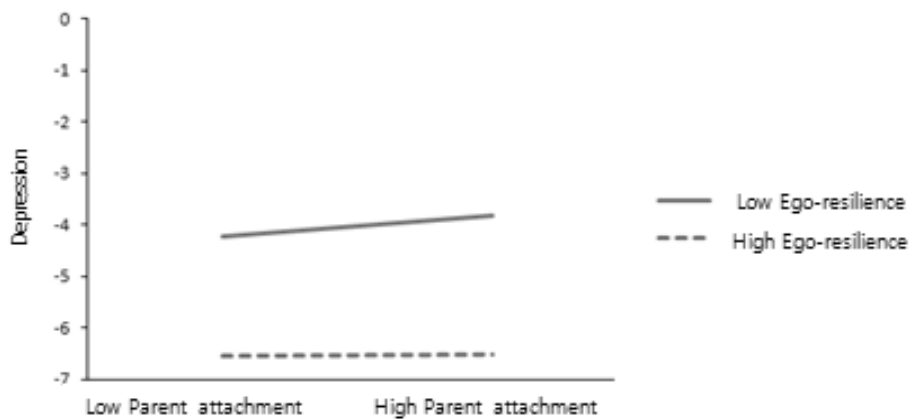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in the De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in the Dep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N = 159)

Depression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3.09		10.87***	3.77		2.16*	
Independent variables	Parent attachment	-.14	-.18	-2.28*	-.33	-.41	-.69
Controlled variable	Ego-resilience	-.43	-.40	-5.23***	-.63	-.58	-1.26
Interaction variables	Parent attachment × Ego-resilience			.053	.36	.40	
R ²		.25			.25		
Adj(R ²)		.24			.23		
F		25.75***			17.13***		

* $p < .05$, *** $p < .001$

($\beta = -.37$, $p < .001$)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부모애착과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이 우울을 31.8% 설명하였다.

‘Model 2’에서는 부모애착($\beta = -1.87$, $p < .01$), 자아탄력성($\beta = -1.64$, $p < .001$)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부모애착과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beta = 2.57$,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독립변수인 부모애착,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 상호작용변수(부모애착×자아탄력성)가 우울을 36.2% 설명하였으며, 이는 ‘Model 1’보다 4.4%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학생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중학생의 경우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중학생의 경우 부모애착이 낮더라도 우울의 증가폭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등학교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고등학교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Model 1’에서는 부모애착($\beta = -.18$, $p < .05$), 자아탄력성($\beta = -.40$, $p < .001$)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부모애착과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이 우울을 24.8% 설명하였다.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애착과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부모애착,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 상호작용변수(부모애착×자아탄력성)가 우울을 24.9% 설명하였다. 이는 고등학교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조절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중·고등학교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중·고등학교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X×M)이 독립변인(X) 및 조절변인(M)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값으로 센터링(centering)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차는 .83으로 .10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은 1.20로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학교스트레스), 조절변수(자아탄력성)를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학교스트레스), 조절변수(자아탄력성), 상호작용변수(학교스트레스×자아탄력성)를 투입하였다.

1)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Model 1'에서는 학교스트레스($\beta = .44, p < .001$), 자아탄력성($\beta = -.33, p < .001$)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학교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이 우울을 42.8% 설명하였다.

'Model 2'에서는 학교스트레스($\beta = 2.14, p < .001$), 자아탄력성($\beta = .48, p < .05$)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학교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beta = -1.57, p < .001$)을 추가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독립변수인 학교스트레스,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 상호작용변수(학교스트레스×자아탄력성)가 우울을 48.9% 설명하였으며, 이는 'Model 1' 보다 6.1%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중학생의 경우 학교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중학생의 경우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School Related Stress and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N = 133)

Depression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1.34		3.88***	-1.60		-1.96
Independent variables	School stress	.34	.44	6.08***	1.65	2.14	4.88***
	Ego-resilience	-.34	-.33	-4.58***	.50	.48	2.20*
Interaction variables	School stress × Ego-resilience				-.38	-1.6	-3.92***
R ²			.43			.49	
Adj(R ²)			.42			.48	
F			48.63***			41.11***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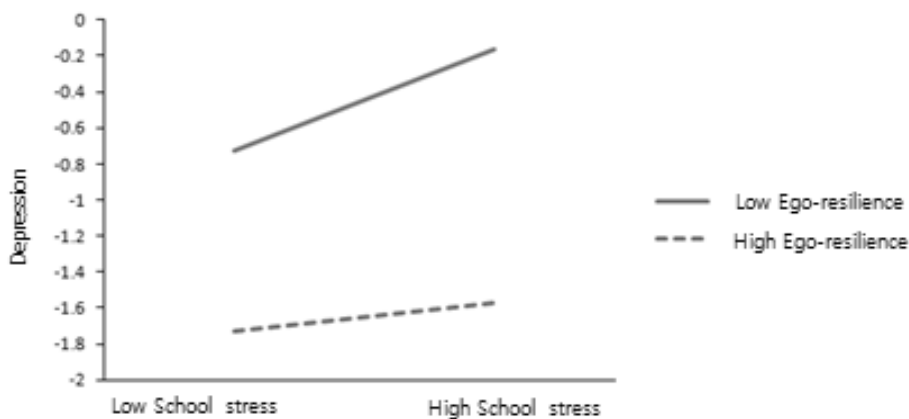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School Related Stress and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학교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우울의 증가폭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Model 1'에서는 학교스트레스($\beta = .46, p < .001$), 자아탄력성($\beta = -.30, p < .001$)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학교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이 우울을 40.2% 설명하였다.

'Model 2'에서는 학교스트레스($\beta = 1.78, p < .01$)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독립변수인 학교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beta = -1.27,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독립변수인 학교스트레스,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 상호작용변수(학교스트레스×자아탄력성)가 우울을 42.8% 설명하였으며, 이는 'Model 1' 보다 2.6%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경험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School Related Stress and Dep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N = 160)

Depression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1.17		3.42**	-1.78		-1.54	
Independent variables	School stress	.42	.46	6.99***	1.61	1.78	3.56**
Controlled variable	Ego-resilience	-.33	-.30	-4.51***	.49	.44	1.54
Interaction variables	School stress × Ego-resilience			-.33	-1.27	-2.66**	
R ²		.40			.43		
Adj(R ²)		.39			.42		
F		52.72***			38.8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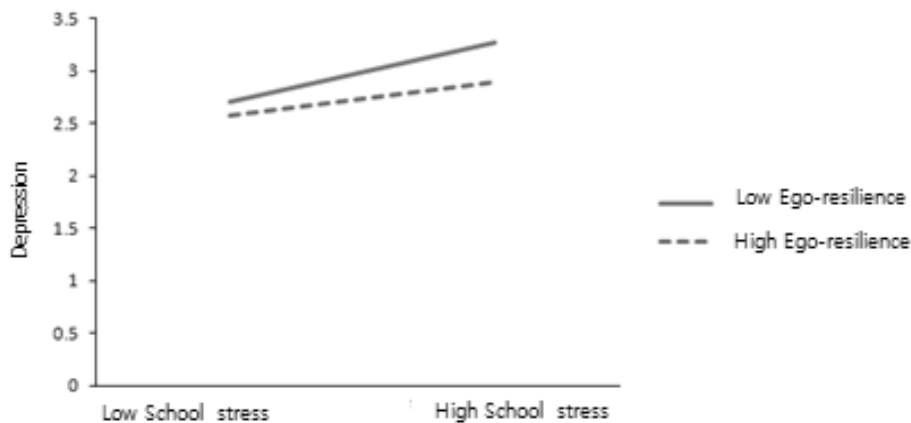


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School Related Stress and Dep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우울의 증가폭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 중·고등학교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와 그들의 부모애착,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부모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중·고등학교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별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우울의 수준이 높아 학교급이 높을수록 우울에 취약하며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2세 미만 아동의 우울증 유병률은 2% 이하로 매우 낮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급증하여 13세와 15세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고 17세와 19세에 가장 정점에 이르며 그 뒤에는 성인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C. Lee 외 역(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 우울과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다는 K. Moon (2004)와 K. Lee and H. Chung(1999)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점차 분리되고, 학업과 진로 결정에 있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우울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 중·고등학생의 발달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 Yoo(2007), J. Lim(2005), C. Han(2001)의 연구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 Moon and K. Oh(2002), H. Lee(2004)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청소년의 우울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한 K. Lim(2012)의 연구나 우울에 성차가 있어 여학생의 우울이 더 높다고 보고한 E. Lee(2007)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남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우울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중학교 때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고

등학교 때는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 중학교 때 발견되었던 성차가 고등학교 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M. Shin(2011)의 연구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의 국내 연구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의 차이, 우울의 연령별 성차를 포괄적으로 탐색한 연구가 드문 점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년기 동안 부모에 대한 애착이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 일관성 있게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결과(J. E. Paterson et al., 1995)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 및 학교생활 건강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D. Min(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우울증 및 불안감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힌 연구결과(Allen et al., 1998)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과 유의미하게 관련된다는 연구결과(G. C. Armsden & M. T. Greenberg, 1987)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친밀감 및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개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기의 시작과 함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커진다는 연구결과(Steinberg & Silverberg, 1986)는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은 중학교 연령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연령에서 낮아지며 대학 연령에서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여성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연령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H. Jang, 1997).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을 획득하기 원하며, 부모와의 애착보다 또래와의 애착이 점진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 애착에서 또래애착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으며(S. Oh, 1999),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부적응행동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J. Ok, 1998)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서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중·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교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우울을 적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이를 완충할 수 있는 개인 내적 자원으로서 자아탄력성을 규명한 연구(J. Kim & S. No, 2003; H. Kim, 2012)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외적 환경변화나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는 연구결과(K. Kim, S. Kwon, & M. Sim, 2005)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갖는 주요한 변인들로 교사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우울, 약물복용 경험이라고 밝힌 Y. Lee(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나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 유형이라는 점을 보여준 선행연구(M. Ko, 2002; J. Kwon, 2003; H. Park, 1997; J. H. Block & J. Block, 1980)와 유사하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외적·내적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므로(J. H. Block & J. Block, 1980),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추스르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우울을 적게 경험할 것이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여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회복할 것이다(Tugade, Fredricson, & Feldman, 2004).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내·외적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며,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보호 요인이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년에 따라 부모애착,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학교급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자아탄력성은 우울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D지역의 일부 중·고등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 청소년들에게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학교스트레스, 우울, 자아탄력성의 측정을 위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방어를 하거나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자료와 심층적 면접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을 함께 고려하여 부모애착,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해 살펴본 점, 이러한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Amato, P. R. (2000).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269-1278.
- An, I. Y. (2005).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self-efficacy, family strengths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with depression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Angold, A., Costello, E. J., Erkanli, A., & Worthman, C. M. (1999). Pubertal changes in hormone levels and depression in girls. *Psychological Medicine*, 29(5), 1043-105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e, J. H. (2002). *Stress and coping research school of high school students about the impact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Cho, M. J., & Kim, K. H.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3), 381-399,

- Choi, I. J. (2007).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3), 611-628.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Cyranowski, J. M., Frank, E., Young, E., & Shear, M. K. (2000). Adolescent onset of the gender difference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 theoretical mode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1), 21-27.
- Hammen, C. & Rudolph, K. D. (2003). Childhood anxiety disorders. In E. J. Marsh, & R. A. Barkley (Eds.), *Child psychopathology* (2nd ed., pp.233-278). NY: Guilford.
- Han, C. H. (2001). *Effects of biogenetic and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on depression, conduct and antisocial behaviors in adolescents-character, self-image and stress as mediating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Han, M. H., & Yoo, A. J. (1995).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49-64.
- Hwang, C. S. (2006).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transition of attachment func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17*(1), 201-225.
- Hwang, Y. J., & Kim, K. G. (2011). The factors influenced on middle-schooler's resilience. *The 1st Korea Child-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147-167*.
- Jang, H. S. (1997).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4*, 88-106.
- Johnson, J. G., Bromley, E., & McGeoch, F. G. (2005). *Role of childhood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of maladaptive and adaptive personality traits*(pp.209-221). In J. M. Oldham, A. E. Skodol, & D. S. Bender(Eds.), *The American Psychiatric Press Textbook of Personality Disorders*.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Kim, H. E. (2013).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 attachment, dysfunctional attitude, ego-identity,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early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Kim, H. J. (2008). Effect factors of adolescences' suicide ris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7*, 69-93.
- Kim, J. S., & No, S. D. (2003). Ego-resilience, school and family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uicidal impulse and psychosocial variable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21*, 153-172.
- Kim, G. H., Kwon, S. J., & Sim, M. Y. (2005).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Test stress and the physical sympto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1), 113-126.
- Kim, M.-H. (2011). *Development of an ego-resilience enhancing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Kim, S. J. (2001).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stressors from school on problem behavior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H. (2006).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cognitions on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o, M. S. (2002). *Relations of ego-resiliency, decision making style, and attributional style: With attachment and life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ngs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J. E. (2003). *The relation of ego-resilience,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problem-sol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C. H., Chung, J. S., & Ree, M. K. (2009).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depression: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433-448.
- Lee, E.-M.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relationship and children's ego-resili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Lee, E. S. (2007).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Journal of Korean*

- Academy of Nursing*, 27(4), 576-585.
- Lee, H. S. (2004).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Relations with parental divorce and parenting practi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1), 421-441.
- Lee, K. Y., Choi, S. C., & Kong, J. S. (2011).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academic stress on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5), 83-108.
- Lee, B.-K. (2005).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behavior on the adolescent's depression and delinqu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J. (2008). The effects of suicidal risk factors on suicidal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659-673.
- Lewisohn, P. M., Rohde, P., & Seeley, J. R. (1998).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older adolescen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8(7), 765-794.
- Lim, E. M., & Chung, S. S. (2009). The changes of youths'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 long-term effects of stress on the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3), 99-121.
- Lim, J. H. (2005). *Temperament, self-concept,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s with depressive-conduct probl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Min, D. I. (2007).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Seoul, Korea.
- Moon, G. J., & Oh, G.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and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29-43.
- Nam, M., & Cho, S. C. (1994).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anxiety and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3(6), 1273-1283.
- Nolen-Hoeksema, S. (2000). The role of rumination in depressive disorders and mixed anxiety/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504-511.
- Oh, S. H. (1999).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ttachment and self-esteem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Ok, J.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B. K. (2007).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al Path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31, 207-235.
- Park, H. J. (1997).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ccording to the self-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ce' perception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Rudolph, K. D. (2002).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4), 3-13.
- Scott, W. D., Dearing, E., Reynolds, W. R., Lindsay, J. E., Baird, G. L., & Hamil, S. (2008). Cognitive Self-Regulation and Depression: Examin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Goal Characteristics in Youth of Northern Flains Trib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2), 379-394.
- Shin, H. S., & Khu, B. Y. (2001). Stress Coping and Its Relationship to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9, 189-225.
- Shin, H. S. (2009). The 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social-behavioral competence in children: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3), 73-98.
- Shin, M. J. (2011).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Korean adolescents : onset and developmental chan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M. J., Chung, K. M., & Kim, E. S. (2012).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Korean Adolescents: Onset and Developmental Chang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93-114.

- Sim, H. S. & Ko, J. H. (2008).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 the role of peer relational skills.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22, 133-163.
- Undheim, A. M. & Sund, A. M. (2005). School factors and the emergence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Norwegian adolescent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4, 446-453.
- Yoo, A. J., Lee, J. S., & Kim, J. M. (2005). The impacts of body-image,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s, and resilienc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5), 123-132.
- Yoo, J. H. (2007). *Influences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the depress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M. S., & Lee, J. K.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adolescent's sexual behavior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school attachment, self-esteem-. *Mental Health & Social Work*, 30, 272-300.

- 접수일 : 2014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14년 10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1월 30일